육군훈련소 1천 장병 불자로 거듭나다

종정협의회 스님들 참여
회장 월인 스님 수계법문

3년 만의 수계법회 재개
미래세대 포교 원력 모아
성덕종 등 포교 후원 눈길
월인 스님 "각 종단 전법을"

논산=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한불교종정협의회는 5월 13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를 찾아 1000여 장병들에게 계를 내리는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코로나 확산 이후 중단된 육군훈련소 수계법회가 각 종단 스님들의 노력으로 재개됐다. 대한불교종정협의회(회장 월인, 이하 종정협)는 5월 13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를 찾아 1000여 장병들에게 계를 내리는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종정협의회 14대 회장으로 추대된 승가종 종정 화산 월인 대종사가 증명법사로 수계법문을 하였으며, 세계불교육조조계종 종정 동봉 스님,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대한불교수미산문조동총림 종정 정림 스님, 불교정중종 도심 스님 등 각 종단 종정, 총무원장 스님 100여 명이 계사로 나서 장병들에게 연비의식을 진행했다.

종정협은 10여 년 전부터 연 2회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수계법회와 함께 위문 행사를 진행해 왔다.

법석에 오른 월인 스님은 "오늘 내리는 이 계는 여러분의 마음에 자비의 씨앗이 되어 주변 이웃에게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힘든 군생활과 사회생활의 어두움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로 삼아 부단히 정진하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내려진 계는 청년들인 훈련 장병들의 상황에 맞게 '생명을 존중할 것' '도둑질을 하지 말 것' '거짓말을 하지 말 것' '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할 것' '술이나 마약 등에 취하지 말 것'으로 쉽게 풀어서 내려졌다.

계를 받은 대표 훈련 장병들은 증명계사로 법석에 오른 월인 스님 앞에서 연비를 받으며 건강한 군 생활을 기원했다.

연비의식은 향불로 피부에 따끔한 충격을 주어 반성하고 마음을 다지는 행사이지만, 훈련 상황임을 참작해 삼보를 상징하는 도장을 스님들이 장병들의 왼팔에 새기는 것으로 대체됐다.

훈련소 내 코로나 확산 여파로 넓게 자리 잡은 장병들 사이를 스님들이 누비며 연비를 진행했고, 훈련 장병들은 합장한 채로 오계를 되새기며 불자로서 거듭나기를 서원했다.

훈련 장병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옵니다. 계를 받는 제자들은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를 힘차게 연호했다.

이날 수계법회를 함께 집전한 호국연무사 주지 여일 군승법사는 "그동안 육군훈련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계법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종정협의회 수계법회를 시작으로 수계법회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군포교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종정협은 수계법회에 앞서 호국연무사 세심관에서 제14대 회장으로 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을 재추대했다. 취임식은 정산 청봉 스님의 봉행사에 이어 추대장 봉정과 직인과 종정기 전달, 제14대 회장 월인 스님의 취임사와 축사, 공로패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종정협은 취임식 비용을 호국연무사에서 진행하여 절약한 비용을 위문품 구입에 보탰다. 수계법회는 승가종과 불교어머니회 등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성덕종에서 쌀 10kg 150포대 등을 추가로 후원했다.

쌍계사, 해동다맥 차문화 대축전



해외 불교 관계자 한자리에 모여
차나무시배지 명상길 걷기 등 체험
진우 스님 "종단 차원 차문화 확산"

지리산 하동 쌍계사(주지 영담)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쌍계사 및 차나무 시배지 일원에서 쌍계사 차문화 대축전을 개최했다.〈사진〉 '2023 하동 세계차엑스포 행사의 일원으로 열린 이번 차문화대축전은 세계차회, 좌담회, 체험행사, 다맥전수회, 고산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5월 11일 차나무 시배지에서 찻잎을 채취하는 '개원 채다 의식'은 헌다에 이어 나라별 의식, 고불문 낭독, 채다의 순으로 진행됐다. 12일에는 쌍계사 괘불전에서 입재 법요식에 이어 세계차들차회, 다맥전수식이 봉행됐다.

육법공양에 이어 108헌다, 울산다도예절협회의 금당 헌다, 대회사, 축사, 혜원정사의 두리차회 시현, 대구종정다문화회의 신라 다례 시현, 혜원정사의 조선(한국) 전통 다도 시현에 이어 팔영루에서는 다맥 전수식이 열렸다.

선다회 이사장 영담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축전이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선다일미(禪茶一味)' 사상을 계승해 진여를 밝히는 차문화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모든 중생이 본래의 자성을 찾는 곳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제21회 진감, 초의, 만허, 고산 대선사 다맥전수식이 열렸다. 진감국사 전승선차 다도교육 이수자 김향미 씨를 비롯한 15명의 차인이 다맥을 전수 받았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북 봉축위, 연등문화축제 '꿈타는 연등회'

2,000여 사부대중 동참 성황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눈길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
음악회 취소의 아쉬움 남아



'전북 봉축위원회'가 5월 13일 연등문화축제를 봉행했다.

'전북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일원, 진성)가 5월 13일 연등문화축제를 봉행했다. 전주 전라감영에서 봉행된 연등문화축제는 (사)불교문화보존회가 주최해 '꿈타는 연등회'를 주제로 열렸다.

행사장 주변의 체험부스에서는 지화장인 김제 성덕사 도홍 스님의 지도로 연등·지화(紙花) 만들기, 금산사 미륵전 공포 조립체험, 전북 진북사 주지 동찬 스님의 지도로 다도&명상체험, 사찰음식 전문가 주호 스님의 수수팥 경단만들기, 금산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여찬 스님이 지도한 연꽃등 만들기, 한지부채 캘리그라피, 전통목판체험, LED 연꽃등 만들기, 소원번쓰기, 내꽃나무화분심기, 한지부채 문인화, 물렛을 돌려라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전라감영 광장에서는 전북 지역의 유치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제17회 전북 어린이 큰 잔치가 열려 부모님과 함께 참가한 어린이들이 동심의 나래를 활짝 폈다.

어린이 잔치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그림그리기, 글짓기 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행사에 참여해 불교와 민속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오후에는 전북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전북도민 노래자랑이 열렸다. 30개 팀이 사전신청하는 등 도민들의 참여열기도 뜨거웠다. 또 새롭게 선보이는 청소년 댄스 UCC공모전, 부처님 생일축하 가족 UCC 공모전도 열렸다. 사전 접수된 영상을 토대로 입상한 참가팀들의 즉석 공연으로 청소년들의 창작열기와 끼를 마음껏 발산했다.

연등축제의 막을 올리는 대규모 연등축제의 시작은 전북불교연합합창단의 축하무대로 막을 올렸다. 수현사 주지 응묵 스님과 김민주 불자의 사회로 진행된 봉축법요식에는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을 비롯하여 공동위원장 일원 스님과 진성 스님, 금산사 부주지 원혜 스님 등 조계종 17교구본말사 스님들과 태고종 전북종무원 도홍 스님, 정읍 일광사 승천 스님 등 전북지역 각 종단 소속 스님들,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등 불자들과 안호영 국회의원, 김성규 전주시의원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공동봉축위원장 일원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불자들은 부처님과 같은 자비행과 실천행을 행하여 세상의 고뇌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중도를 실천해 나와 이웃이 함께 평온한 일상과 행복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정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누구나 미래를 꿈꾸며 설레게 하고 그 미래를 향해 부단히 정진하게 하여 조화로운 어울림과 평온이 함께하는 일상이기를 바란다"고 설했다.

공동봉축위원장 진성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명존중, 인간 존중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불자들의 사명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봉축음악회는 문화재 당국의 석연찮은 반대로 취소돼 불자들의 아쉬움을 샀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이산 탑사 진성 스님, 전주교도소 위문

5월 10일 부처님오신날 맞아 영양찰떡 전달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과 마이산 탑사 붓다봉사단(단장 이재현)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백용성 부대 장병 위문에 이어 전주교도소와 전주소년원 수용자들을 위한 자비나눔 활동을 이어갔다.

진성 스님과 마이산 탑사 붓다봉사단은 5월 10일 전주교도소(소장 박경선)와 전주송천정보통신학교(소년원장 장재원)를 방문해 영양 찰떡 1,300명분(약 530만원 상당)과 학생 간식과 음료수를 전달했다.〈사진〉

또 청소년자립생활관과 에마뉘엘 쉼터, 천사의 집에도 후원금과 100명분의 청소년 간식과 음료수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진성 스님을 비롯해 불교위원장 현진 스님(전주 천지사), 이재현 마이산 탑사 붓다봉사단장, 황동현 전주소년원협의회 고문, 김도은 소년원 어머니회장, 남상준 (사)전북문화관광연구소장, 탑밴드 봉사단 천순희 단장, 사랑으로 행복을 붓다 복지관 김경은 단장, 소년원 어머니회 지원단 정해자 단장 등이 참석했다.

진성 스님은 "수용자들의 자신의 죄업을 진정으로 참회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단법인 세계불교교황청
World Buddhism Monarchy Corporation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본 세계불교교황청은 세계불교승가연합재단과 룸비니불교협의회와 유대를 하여 부처님탄생지 룸비니동산에서 팔만사천등 연등불사를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룸비니 내 세계불교교황청 마하라니사찰에 약사여래좌상 삼천불 봉안불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매년 룸비니성지순례와 대만 국제공승재에 한국대표단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 세계불교교황청 네팔본부 마하라니사찰

국내종단 (대표 고문단)

사)대중불교조계종	종정 향덕큰스님	세계선불교 조계종	종정 현중큰스님	대 법 황	향덕존자
대한불교정토선종	종정 정암큰스님	대한불교 반야조계종	종정 지우큰스님	교황청장	석능인대승통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 석능인큰스님	대한불교 선율조계종	종정 혜광큰스님	전권대사	운봉대종사
사)동국불교 조계종	종정 자화큰스님	세계불교 미륵천태종	종정 천호큰스님	상임이사	도선 무아 용산 상호 청암 용이 혜광 대웅
대승불교 임제종	종정 법장큰스님	대승불교 재단법왕종	종정 운봉큰스님	법인이사	원산 도법 혜현 범해 봉화 대원.
대한불교연조계종	종정 효천큰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육조선원	종정 혜암큰스님	특임이사	선재람샬 반테 쭌두 누룹 히세 갤루 템바
세계불교 일화조계종	종정 청암큰스님	대한불교 호법조계종	종정 호법큰스님		
대한불교 대명조계종	종정 용이큰스님	한국불교 법왕종	종정 돈오큰스님		
대한불교 선불조계종	종정 용산큰스님	대한불교 미타조계종	종정 대영큰스님		
대한불교 홍제종	종정 운붕큰스님	대한불교 도선국사조계종	종정 도선큰스님		
한국호국 선불교조계종	종정 자승큰스님	대한불교 성불조계종	종정 정인큰스님		
사)불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명성큰스님	대한불교 지장회	대표 해광대법사		
대한불교 동산조계종	종정 진관큰스님	호국불교 승가회	대표 성호큰스님		
대한불교 벽암조계종	종정 해안큰스님	호국불교 조계종	대표 현광대법사		
		대한불교 정토회	대표 청명대법사		

각 종단 사찰 가입환영

- 종단설립하고자 하는분
발급: 단체등록증, 종정추대장, 종헌종법, 법계증서.
- 사찰등록하고자 하는분
발급: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정관.
본 단체에 등록한 사찰은 개인사찰 소유권인정함.

●세계불교교황청 중앙본부 :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291. 2층 ●청장실 : 053) 321-5008. ●팩스: 053)321-6008 ●홈페이지: www.monarchywbc.com ●Email : buddhasangha@naver.com